

# 전통시장 국비 146억 지원

### 전북도, 중기벤처부 사업 지원대상 도내 42곳 선정 도내 전통시장 활력 회복·경쟁력 향상 큰 도움 기대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에 응모하여 도내 42개 전통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14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2일 희망사업 프로젝트사업 최종 지원대상 등을 선정하며 상반기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등 9개 분야 사업에, 도내에서는 42개 시장이 선정돼 약 14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희망사업 프로젝트 가운데 문화관광형 시장에는 전주 모래내시장, 전주신중앙시장, 정읍샘고을시장, 군산공설시장 등 4곳, 특성화 첫걸음 사업에는 익산북부시장, 김제전통시장 등 2곳이 선정됐다.

희망사업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응모한 전국 143개 시장 중 총 65개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며 이중 전라북도가 6개 선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밖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전주남부시장 등 10곳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부안상설시장 등 6곳 △화재감지시설 설치에 익산매일시장 등 12곳 △전통시장 홍보사업에 고창시장 등 38시장 △시장매너지 지원에 무주반딧불시장 등 7곳 △아시안육성사업에 남원공설시장 등 2곳 △장보기·배출서비스에 군산공설시장 △공동매점 지원에 진안고원시장 등 5곳 등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그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더불어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120개 시장이 모이고 3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전국 전통시장 문화축제인 '2018 전국국수시장박람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여 전북상인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침체된 지역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황철호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최근 전북지역은 조선, 자동차산업 어려움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사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고객들이 다시 불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주신중앙시장 반봉헌 회장은 "이번 공모에 '차차차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지원했다"면서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 운영 등 신중앙시장만의 콘텐츠를 개발해 젊은 고객층과 타 지역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상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김승수 전주시장이 2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맑은 공기 도시, garden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서에 결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올 상반기 중앙공모사업 국비 1317억 확보

### 전북도, 6월 중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등 11개 선정

전북도는 2018년도 6월중 중앙공모사업에서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부안, 70억원), 마을단위 특화개발(고창·부안, 35억원),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완주, 21.6억원) 등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66.2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8년도 상반기 중앙공모사업에서 총 59건의 중앙공

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17억원의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상반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삼락농정 등 농생명 분야(19건, 213.9억원) ▲토탈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12건, 107.3억원) ▲산업구조 체질개선 및 성장동력 분야(11건, 838.6억원)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분야(10건, 108.1억원) ▲북지·생

활·안전·환경 등 분야(7건, 48.7억

원)

전북도는 7월에도 7개 사업, 200.8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 평가 등에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급속하게 변화하는 선거환경 대응”

### 한영석 전북선관위 사무처장 취임식



하고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지도과장·관리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으며, 평소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조직 내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4층 대회의실에서 도위원회 전직원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영석 사무처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한영석 신임 사무처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달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는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한 덕분이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고 구성원 간의 화합·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영석 사무처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 강동욱 전북도체육회 스포츠진흥본부장 퇴임

강동욱 전북도체육회 스포츠진흥본부장(61, 이화박사)이 지난달 29일자로 퇴임했다.

강동욱 본부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몸담았던 체육회를 떠나려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재임기간 동안 함께 했던 직원들과의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회고했다.

강 본부장은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전북체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 전북제일고(전 이리상고) 펜싱

선수 출신인 강 본부장은 2001년 3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 입사, 전국체전경기부 총괄과 경기 1팀장 등을 역임하는 과정에 전북체육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전북어르신대회’를 개최해 16개 시·도의 롤 모델이 되기도 했으며 ▲동호인리그 운영 ▲2009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 ▲2010년 전북어르신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북생활체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또 지난 2016년 3월 통합된 전라북



도체육회에서 지역지원과장과 스포츠진흥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두루 아우르는 체육전문가로 전북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강 본부장은 이리중학교·이리여고·김제중앙중 펜싱지도자로 활동하는 시간을 통해 전북펜싱이 전국 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내왔다. /익산=우병희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신진 연구논문 발표대회 9월 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태권도에 관심있는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2018 신진 태권도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연다.

이번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태권도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능력 함양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태권도에 관심있는 신진 연구자는 누구나' 태권도(원) 발전과 관련한 전반의 자유주제로 논문을 작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재단은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면 심사 후, 10월 20일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서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8 신진 태권도 연구논문 발표대회 최우수상 1명(팀)에게는 학술장

려금 250만원과 재단 이사장 상장을, 우수상 2명(팀)에게는 학술장려금 180만원과 재단 이사장 상장, 장려상 3명(팀)은 학술장려금 120만원과 재단 이사장 상장, 노력상 1명(팀)은 학술장려금 50만원과 재단 이사장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한무도학회지 특별 기고 기회를 부여하고, 모든 수상자는 향후 자료집으로 발간되거나 상품 개발 및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18 신진 태권도 연구논문 발표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329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 전주에서 전통문화 교육

해외에 파견돼 한국어 교육에 나선 교원들이 전주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세계 곳곳에 전파하게 된다.

전주시는 세종학당 해외파견 한국어 교원 20여명이 2일부터 5일까지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수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통문화 실습은 지난해 전주시와 세종학당재단이 체결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새롭게 마련된 과정이다.

교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한벽문화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음식조리, 한지공예체험, 사물놀이, 민요 등을 수강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